



2023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3

24(Mon) - 29(Sat) April 2023

콘퍼런스 I

지역발전과 언론의 과제

- 약력
- 발표자료



WJC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3

2023 세계기자대회

2023년 4월 25일(월)

컨퍼런스 I	
주 제	지역발전과 언론의 과제
좌 장	조성겸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133
발 제 자	김준용 부산일보, 기자, 한국 134
	이상배 부산일보, 기자, 한국
	맹대환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 한국 140
	모하메드 아스무 바 Sierra Leone Broadcasting Corporation, 미디어 및 홍보 담당 이사, 시에라리온 144
	파블로 레온 EL PAÍS, 기자 겸 작가, 스페인 149
	포라멧 당사타폰 Bangkok Post, 뉴스 리포터, 태국 153



WJC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3

2023 세계기자대회

좌장



조성겸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주요경력

-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 ◎ 2008-2022 충남대학교 아시아여론연구소 소장
- ◎ 2019-2021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원장
- ◎ 2015-2016 한국언론학회 회장
- ◎ 2014-2016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 2012-2014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 ◎ KBS 선거방송 자문위원회,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ABC협회 인증위원 역임
- ◎ 국제학술지 AJPOR 편집자
- ◎ 아시아태평양 언론학회연합 사무총장

컨퍼런스 I

발제자



김준용

부산일보
기자
한국

학력

-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졸업 (2015.02)

주요경력

- ◎ 부산일보 사회부 행정팀 (2022.11~현재)
- ◎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 2030팀 (2021.11~2022.11)
- ◎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 뉴콘텐츠팀 (2020.11~2021.11)
- ◎ 부산일보 해양수산부 (2019.11~2020.11)
- ◎ 부산일보 사회부 경찰팀 (2015.7~2019.11)

수상경력

- ◎ 제13, 14회 한국기독언론대상 (대상, 나눔기부부문)
- ◎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 제313, 329, 332, 336, 386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기획보도 부문, 지역 취재보도 부문)
- ◎ 제22, 25, 26회 일경언론상
- ◎ 제50회, 54회 한국기자상
- ◎ 2019년, 2023년 한국신문상

주요저서

- ◎ 산복빨래방 -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부산일보, 2022.05~2022.10)

발제자



이상배

부산일보
기자
한국

학력

- ◎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졸업 (2019.02)

주요경력

- ◎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 (2022.11~현재)
- ◎ 부산일보 사회부 (2018.11~2022.11)

수상경력

- ◎ 2023년 한국신문상
- ◎ 제54회 한국기자상
- ◎ 제26회 일경언론상 대상
- ◎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기획보도 부문)
- ◎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 제14회 한국기독언론대상 (나눔기부 부문)

주요저서

- ◎ 산복빨래방 -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부산일보, 2022.05~2022.10)

컨퍼런스 I

김준용 & 이상배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산복빨래방]

“산복도로에 빨래방을 차려볼까?”

부산일보 기자와 PD가 차린 산복빨래방은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산복도로와 빨래방. 우리를 설명하는 두 단어이다. 우리는 산복빨래방에서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고 싶었다. 6개월의 여정동안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소중한 이야기들이 빨래방에 쌓였다.

■ 산의 도시, 부산

부산은 바다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산이라는 이름에 ‘산’이 들어가 있듯, 부산은 도시 어디에나 산이 있는 ‘산의 도시’이기도 하다. 산 어귀, 산허리에는 주민이 사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을 구불구불 잇는 도로가 바로 ‘산복도로’이다.

22km 길이의 산복도로는 부산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하다. 1950년대 한국전쟁이 터지자 피란민들이 임시 수도인 부산에 모여들었다. 모든 피란민을 품기에 부산의 평지는 좁았다. 피란민들은 산을 타고 올라 곳곳에 판잣집을 지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기를 맞은 1970년대, 다시 한번 산복도로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부산을 찾았기 때문이다. 산복도로는 부산항 하역 노동자, 고무공장 여공들의 ‘베드 타운’이었다. 산허리에 있는 탓에 생활 기반 시설은 열악했지만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에게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공장이 문을 닫자 사람들은 산복도로를 떠나, 돌 떠났다. 2023년. 산복도로는 옛 모습은 그대로 간직한 채 주민만 사라져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꼴이 됐다. 그나마 살고 있는 주민은 흐르는 세월이 나이를 먹었고, 예전에 사람이 바글바글 살았던 주택은 사람 손이 닿지 못한 채 비었다. 오늘날 산복도로는 주거지보다는 밤풍경이 예쁜 관광지로 사람들에게 더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이 산복도로에 스민 진짜 부산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역사책에 글과 사진으로 적힌 이야기 대신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하려 했다.

김준용 & 이상배

■ 기자가 운영하는 빨래방

‘매일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 볼까?’, ‘산복도로 마을 중 어디로 가야하나?’

일반적인 취재 방법으로는 산복도로 이야기를 막연히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행정 기관을 통해 ‘흔한 방식’으로 주민을 섭외해 이야기를 듣는다면 산복도로를 다룬 이전의 기사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기자 명함과 취재를 내세우지 않고, 주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래,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

산복도로는 열악하다. 마을을 다니는 버스 노선은 한 손에 꼽히는 데다, 수도꼭지를 틀면 종종 녹물이 나오기도 한다. 도시에서는 당연했던 수도관, 전기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세월을 오랫동안 마주한 흔적을 담고 있다. 문득 사회부 기자로 입사해 산복도로 취재를 하며 추운 겨울 차가운 물로 손빨래 하던 할머니들이 떠올랐다. ‘도시에 흔히 있는 코인빨래방을 산복도로에 열면 주민들이 빨래방을 찾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2022년 5월 부산 산복도로 호천마을에 빨래방을 열었다. 3평 남짓한 공간을 개조한 공간. 주민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예쁘고 알록달록하게 빨래방을 꾸몄다. 회사에서는 취재를 위해 빨래방을 차리겠다고 하자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산복도로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큰 뜻’에 흔쾌히 동의했다. 한 달 간의 공사 끝에 세계 최초 언론사가 운영하는 빨래방이 세상에 공개됐다.

■ 부산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어머님 오셨습니까?”, “아버님 안녕하세요?, 파란 이불 맞으시죠?”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직원 모드’가 된다. 주민들이 가져온 빨랫감을 확인하고 화이트보드에 번호와 빨랫감의 종류를 기록한다. 주민들은 주로 금색 보자기, 장바구니에 이불, 패딩 같은 무거운 빨랫감을 넣어 빨래방을 찾는다. 빨래방에는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가 실재 없이 돌아간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오르막 계단을 힘겹게 온 어머님, 아버님과 음료, 다과를 앞에 두고 마주 앉는다.

컨퍼런스 I

김준용 & 이상배

이야기 주제는 없다. 왜 이렇게 이번 여름은 가뭄인지, 더운 지부터 주말에 온 자식들 이야기, 옛날 동네 이야기, 시내 고무공장 다닐 때 이야기, 시집왔을 때 이야기를 두서없이 이야기가 이어진다. 문을 연 첫 달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할까 고민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산복도로 어르신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시간이 최고였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빨랫감을 받고 안부를 주거나 받거나 하다보니 어르신들은 어느덧 어머니, 아버님이 됐고 속 깊은 이야기도 털어놓는다.

산복빨래방 세탁비는 얼마냐고? 무료이다. 어머니, 아버님은 돈이 아닌 이야기로 세탁비를 지불한다. 역사책에서 봤던 부산항 인근 신발공장 여공이 오늘 빨래를 맡긴 눈앞의 어머니이다. 산복도로 도시재생이 시작되던 때 마을수리공이셨던 아버님이 '내일 오후 5시에 빨랫감을 가져오겠다'고 말하시는 아버님이다. 어머니, 아버님이 내는 세탁비는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40년 이상 된 값비싼 이야기들이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고생한다며 건네는 비 오는 날 부침개, 더운 날 시원한 수박은 이야기에 더해지는 따뜻한 정이기도 하다.

■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

매주 화요일 빨래방의 이야기를 영상, 기사로 유튜브, 지면, 포털사이트에 업로드했다. 빨래방에 오는 어머니, 아버님의 옛날 이야기부터 함께 최신 영화를 보고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 등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을 매주 기록했다. 이름은 빨래방이었지만 어느덧 빨래방은 산복도로의 사랑방이 됐다.

6개월 간의 이야기에 가장 많이 들은 반응은 “부산일보를 다시 봤다. 부산일보가 이런 것도 하느냐.”였다. ‘창의적이다’, ‘지역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같은 과분한 칭찬도 있었다. 혹자는 지역신문이 나아가야 할 길,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자를 비하하는 표현 중 ‘기레기’라는 표현이 있다.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이다.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제대로 쓰지 않는 기자들이 사회에서 볼 때 많아져 생긴 신조어일 것이다. ‘기레기’라는 기자의 직업을 비하하는 신조어가 생긴 시대에 빨래방이 조금 더 성실히 조금 더 가까이 진짜 이야기를 듣고자 한 노력에 보내주시는 칭찬이라고 생각한다.

김준용 & 이상배

빨래방을 통해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건 '진짜 이야기'였다. 우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산복도로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특정 지역의 이야기, 특정 공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은 지역의 역사와 함께 숨 쉬어온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지역에는 우리가 길어 올릴 이야기가 많다. 지역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하는 것은 지역 언론이 지켜나가야 할 책무이다. 부산일보를 포함해 지역 언론에서 제2, 제3의 산복빨래방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컨퍼런스 I

발제자



맹대환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
한국

학력

- ◎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주요경력

- ◎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부장
- ◎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

수상경력

- ◎ 2013년 제44회 한국기자상 지역취재보도부문
- ◎ 2012년 제43회 한국기자상 지역취재보도부문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

언론과 취재원의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 전반의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언론에게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원칙은 매우 어려운 아젠다라고 할 수 있겠다.

당장, 인구가 줄어 지역소멸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지역언론은 어떠한 취재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불가근 불가원'을 내세워 지역사회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지역 상황에 밝은 사람이라면 애정 어린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이 소멸한다면 언론 또한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생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이 줄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았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생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생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생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생율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 곡성의 지난해 합계출생율은 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전체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가 1000명 미만인 곳이 20곳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전남의 초등학교 가운데 휴교 중인 학교를 포함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49곳(전체 10.4%)에 달했다. 출생아가 줄면서 산부인과·어린이집·학교 등 기존 시설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고, 다시 수요 감소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언론이 보여야 할 취재 방식은 '비판을 하되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어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언론은 이런 기조에 맞춰 사회 다양한 분야의 지역 상생발전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컨퍼런스 I

맹대환

출생율 증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육아 지원 정책에 허와 실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광주·전남의 노인복지를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해외 모범사례를 취재하고 지역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도 주요 아젠다 중 하나다.

지구촌 공동 문제인 환경보호를 위해 무등산 지키기와 영산강 보호하기, 기후 변화에 따른 최악의 가뭄 극복 등에 기획기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농업과 해양도시인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스마트팜과 해양산업 활성화에도 언론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의 문제는 결국 수도권 문제, 국가 전체의 문제와 맞닿아 있음에도, 정치인들은 인구 수가 많은 수도권에 비해 지역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문제가 뉴스 소비나 광고협찬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거대 언론이 지역뉴스를 도외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발행부수가 많은 한국의 메이저 신문사 중 전체 발행면에 지역뉴스를 할애하는 것은 대부분 1개면 뿐이다. 기존에는 호남의 경우 전북, 광주, 전남, 제주 4개 광역자치단체를 묶어 1개 면에 지역뉴스를 할애했다. 그것도 세로 15단 중 5단은 광고를 넣고 나머지 10단에 5~7개 뉴스를 게재했다. 4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수가 500만명에 달하는 데 이 지역뉴스가 5~7개에 그친다면 너무나도 중앙(수도권) 편향적인 시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지역언론은 대다수 기사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에 집중돼 있다. 지역에서 사용되는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역의 정치, 행정가들이 지역을 위해 올바르게 일을 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어떤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지가 주요 뉴스거리다.

상당수 지역언론사가 경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분명, 지역언론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도구이다. 뉴스의 퀄리티로 매일매일 독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지역언론이지만 지역언론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지역언론의 소유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결국 뉴스의 퀄리티 하락과 연계되고 있지만, 지역에 애정을 갖고 매일매일 좋은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들도 많다.

맹대환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최근 지역 언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3%가 '기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널리스트로서 사명감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불만족'하는 절반 가까운 기자들도 사명감으로 생활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낮은 임금과 업무 과다에 지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언론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지역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이다. 지역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해법까지 모색하는 지역언론에 지역민들도 관심을 보이고 기꺼이 구독료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주최한 올해의 기자상 심사에서도 산업안전, 농업, 정치, 5·18민주화운동 트라우마, 외국인 정착마을, 외국인 근로자 브로커 실태 등 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기사들이 비록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지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뉴스라고 하겠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민간 외교 정상화를 위해서도 사업을 추진했다. 광주에 위치한 중국총영사관, 공자학원과 협업해 '차이나클럽'을 1년간 운영했다. 차이나클럽은 기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어 회화를 배우고 지역에 분포해 있는 중국 관련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자들이 직접 중국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면서 양국의 민간외교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사드 분쟁 이후 한국과 중국 간 외교는 물론 무역 또한 수 년 동안 단절돼 있다. 한국과 중국의 언론인 교류 활동도 중단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와 민간 영역 분리 차원에서 언론이 편향된 시각을 갖고 다른 국가를 인식하지 않도록 지역언론의 노력이 필요하다.

컨퍼런스 I

발제자



모하메드 아스뮤 바

Sierra Leone Broadcasting Corporation

미디어 및 홍보 담당 이사

시에라리온

학력

- © 2021/2022 Hubert H Humphrey 펠로우십
- © 2013 UN Reham Al farra 펠로우십
- © BA, in International Relations, Fourah Bay College
- © 시에라리온 Fourah Bay College 국제관계학 학사

주요경력

- © 2019-2022 시에라리온 기자 협회 사무총장
- © Sierra Leone Broadcasting Corporation 선임기자
- © Sierra Leone Broadcasting Corporation 홍보 전문가
- © Sierra Leone Broadcasting Corporation 언론홍보국장
- © 이사회 임원
- © 시에라리온 TV 프로그램 “The Podium” 앵커

모하메드 아스뮤 바

[지역 발전을 향한 언론의 도전]

의장님 그리고 세계기자대회 관계자 여러분과 전 세계에서 오신 동료 기자에게 시에라리온이라는 이름의 작은 서아프리카 국가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참고로 시에라리온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텔레비전과 신문이 먼저 들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영국 식민주의자와 일찍이 접촉하면서 온갖 역사적 풍파를 겪은 나라이기에 시에라리온은 언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과거 많은 국가에서 신문은 그저 꿈의 문물이었는데, 아프리카의 많은 도시에서는 시에라리온의 신문을 읽곤 했다. 불행하게도 20세기에 들어서자 다른 국가가 탄생하고 더 나은 언론 문화가 나타나면서 시에라리온의 영예는 그 기세가 꺾이고 만다.

배경

시에라리온은 단순한 섬이 아니다. 시에라리온의 언론 환경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언론 환경과 유사하거나 더 나쁜 상태에 놓여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90년대의 유혈 내전 이후 2010년에 설립된 서아프리카 최초의 공영방송인 시에라리온 방송국(SLBC)을 소개하려 한다. SLBC는 국제연합(UN) 라디오와 기존 국영방송인 시에라리온 방송부(SLBS)가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시에라리온 시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독립 공영 방송사를 국가에 두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진실·화해 보고서(Truth and Reconciliation Repor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약 10년 전에 설립된 때부터 SLBC는 오늘날 소위 발전적 언론이라 불리는 개념을 토대로 시에라리온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 SLBC는 북부, 남부 및 동부의 모든 지역 본부에 지사를 두고 있다.

컨퍼런스 I

모하메드 아스무 바

SLBC 지역 방송국

SLBC 관리자는 반자율적 운영 형태를 추구한다. SLBC는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자체 계시판, 자체 국내 뉴스, 지역 시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도에 위치한 지사는 국가 성향에 맞게 뉴스를 제작한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SLBC의 지사가 위치하는 곳은 하나의 민족의 지배 하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제작된다. 예를 들어 동부 도시인 코노(Kono)에서는 여러 언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코노어로 진행된다. 멘데족(Mende)이 지배하는 지역인 케네마(Kenema)의 SLBC 지사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마케니(Makeni)와 마그부르크(Magburka)에 위치한 북부 지사에는 시에라리온 북부에서 주로 사용되는 템네어(Temne)로 진행되는 쇼도 있다.

이들 지사는 방송 업무에 제약을 주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당면 문제 중 하나로 자원 제약을 들 수 있다. 지역 방송국은 프리타운(Freetown) 본사에서 예산 할당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국 관리자와 일부 직원은 본사에서 직접 급여를 받는다. 지역 방송국 운영 비용은 해당 방송국에서 직접 부담하는데, 프로그램 내 광고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SLBC 지역 방송국이 담당 지역에서 직면하는 또 다른 주요 어려움으로 장비 부족을 들 수 있다. 보유 장비의 대부분은 구식이고 오래되어 쓸모가 없는 상태이다. 최신 방송 장비가 부족하기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결국 방송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모하메드 아스뮤 바

지역 방송국에 소속된 기자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방문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이 우려하고 원하는 바를 알린다. 그 결과 정부 관계자와 NGO 관계자가 파견되어 지역 개발 활동을 펼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SLBC 모닝커피

SLBC에는 “모닝커피(Morning Coffee)”라는 이름의 인기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 이 아침 라디오 쇼는 모든 지역 방송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국 각지의 특파원을 인터뷰하여 해당 지역의 시사 뉴스를 제공한다. 모닝커피는 시에라리온의 전파를 타고 있고, 심지어 SLBC와 무관한 방송국도 SLBC의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방송 시간을 채우고 있다.

시에라리온 언론이 직면한 과제

여러 개발도상국 언론과 마찬가지로 시에라리온 언론 역시 강대국의 정치적 간섭부터 광고 수익 감소, 국내 언론인의 존재 사유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신흥 매체인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1) 소셜미디어: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대폰 소유자는 윤리 기준과 직무 책임에 구속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촬영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신문, 라디오나 TV에서 뉴스가 방송되기 전에 사건·사고를 유포한다. 이처럼 전문성 없이 신속하게 보도하는 행태는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역할에 위기를 드리우고 있다.
- (2) 새로운 보도 행태는 신문이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광고 감소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 다수의 기업 소유주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단편 영상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컨퍼런스 I

모하메드 아스무 바

- (3) 인재 유출: 여러 서아프리카 국가의 언론사는 그 여건이 전도유망하지 않기에 고급 인력 유출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토크 쇼의 장기 경력 편집자나 앵커가 공보 전문가가 되거나, 자신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 급여 조건이 좋은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더러 있다.
- (4) 투자 저조: 언론의 근본적인 역할은 사회 감시자로 역할하면서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고뇌하는 자에게 안위를 주고, 안위를 누리는 자에게 고뇌거리를 주는 것”이지만, 궁핍한 언론 환경에 대비하려면 언론의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언론 투자가 급격하게 줄었고 기존 투자자들은 지난 2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다수의 기업이 폐업하면서 스스로를 챙기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플레이션 유행으로 전자 언론과 서면 언론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인쇄물 자재값이 두 배 이상 올랐고, 광고주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광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처럼 시에라리온 언론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있다.

발제자



파블로 레온

EL PAÍS
기자 겸 작가
스페인

학력

- ◎ 2008 UAM / EL PAÍS 저널리즘 석사 학위
- ◎ 1999-2004 UAH 환경과학 학사 및 석사
- ◎ 알칼라데에나레스 대학교 (마드리드)
- ◎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교 Erasmus 프로그램 (독일)

주요경력

- ◎ 2009-현재 EL PAÍS 국제부
- ◎ (前) EL PAÍS 주간지 Semanal; Long Stories; Local Madrid.
- ◎ 2005-2008 Insider Tour Berlin (베를린)
- ◎ 2007년 1월-7월 파라카스 국립공원 (페루)
- ◎ I Love Bici 블로그 설립자 (Sustainable Mobility)

컨퍼런스 I

파블로 레온

[언론의 방향성을 제시할 지역 뉴스의 힘]

21세기 인류는 끊임없는 위협 속에 살고 있다. 기후변화, 감시 자본주의, 빅테크 권력, 인플레이션 등 불가항력과 상실 그리고 무력감에 이어 전 세계는 정치 양극화 심화, 가짜뉴스, 조작, 포퓰리즘의 득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같이, 이러한 급진극우적 움직임 중 일부는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하자 폭력행위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적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급진주의자는 자신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정당화했다. 방어법이 아니라 쿠데타가 진정으로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고 조작이다. 거짓은 인간 본연의 특성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급진주의자의 주장 역시 새로운 이론이 아니다.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개념이 탄생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2017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됐을 때 기록적인 판매고를 기록했는데, 이 책에서는 강성 전체주의를 움직이는 일련의 원칙을 “전쟁은 곧 평화이다. 자유는 곧 노예이다. 무지는 곧 힘이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는 진실을 숨기고 정부의 거짓말을 밀어붙이는 데 온 힘을 쏟아붓는 진실부(Ministry of Truth)가 특히 이 슬로건을 주창한다.

오웰(1903~1950)은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뒤 런던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 당시 오웰은 세계 정세에 대한 걱정이 컸다. 1936년에 독재정치는 이미 스페인을 장악했고, 독일에서 유럽 전체로 그 광풍이 번져가는 추세였으며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에 의해 독재정치가 득세한 상태였다. 오웰은 전체주의 성립에 여러 요소가 필요한데, 특히 거짓(및 선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웰은 언론인이었기에 진실이 경시되고 억압받는 것을 우려했다. “진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그의 심경을 알 수 있다. 오웰이 이 말을 한 지 겨우 한 세기가 지났을 뿐인데도 진실은 다시 한번 탄압받고 있다. 한편, 오늘날 언론사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지만) 위기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질타에 시달리고 있다.

파블로 레온

21세기, 우리 모두는 인터넷, 특히 소셜 네트워크 시대로의 전환을 목격했다. 202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필리핀의 언론인인 마리아 레사(Maria Ressa)는 소셜 네트워크를 두고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고, 우리의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 그리고 투표하려는 후보자를 바꿀 수 있는” 무기라고 언급했다.

(최근 나는 운 좋게 레사와 인터뷰할 수 있었다)

오웰처럼 레사 역시 진실이 위협받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그녀는 양극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망각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소위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로 바꾸는 알고리즘에 의해 사회가 급진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인에게는 하나의 진실과 자신의 의견과 비슷한 피드만이 제공된다. 다른 의견을 접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쪽에 있는 자들을 악의 축으로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편협성과 급진성이 심화된다.

“사실이 없으면 진실도 없다. 진실이 없으면 신뢰도 없다. 그리고 신뢰 없이는 현실을 공유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유권자가 권력에 유린당하고 있기에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 없고, 따라서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분열은 기존의 뉴스 생태계를 무너뜨렸고 팬데믹은 디지털 분열을 가속화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이너러리티(Daniel Innerarity)와 카르메 콜로미니(Carme Colomina)는 ‘알고리즘 민주주의에서의 진실(The truth in algorithmic democracies)’이라는 표제의 논문에서 “탈중개화가 이 현상을 가속화했고, 현실을 옮기던 기존 매체(예: 언론, 라디오, 텔레비전)의 독점을 종식시켰다.”라고 언급했다.

“다양한 목소리로 구성된 세계가 뉴스 시스템과 충돌하고, 혼란이 깊어지며, 새로운 콘텐츠와 뒤섞인다. 감정에 따라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진실이 바뀐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매체의 위기에 기인하기도 하며, 정보를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의사 결정 능력에 상당히 간섭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질서에 기인하기도 한다.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는 민간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들 요소는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리 모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은 틱톡(TikTok)에서 변화의 양상을 목격하고 있다.

컨퍼런스 I

파블로 레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imir Zelensky) 대통령의 전 대변인이자 우크라이나 정부 소셜미디어 전략 담당인 율리아 멘델(Julia Mendel)은 “가짜뉴스는 [진실보다] 더 쉽게 퍼지고, 틱톡의 콘텐츠는 거짓진실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초창기에 언론과 언론인은 소셜미디어를 그저 흥미로운 도구로 보았지만,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거짓과 허위사실을 퍼뜨리는데 크게 이바지했고 언론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반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까? 친밀감과 투명성, 공감과 연결, 지역 언론의 도움 그리고 사람을 다시 연결짓는 언론 프로젝트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건전한 언론이 건전한 민주주의와 직결된다는 점을 대중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수년에 걸친 세계화 이후, 이제는 포스트 세계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대중은 지역의 사정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보이지 않던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지역의 삶이 우리와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 대한 정보 수요가 높아지게 되었다. 더 친밀하고, 진실되며, 투명하고, 유용한 지역 정보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상당한 수의 지역 뉴스는 국제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도시주의, 서울의 거주 문제, 파리의 교통 모델과 시위처럼 지역 고유의 사정이지만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기삿거리가 전 세계 여러 지역(예: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스페인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에 존재하고 있다. 이들 모두 지역 뉴스지만, 국제적인 성질을 때놓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글로컬(Global: 'Global'과 'Local'의 합성어) 뉴스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고를 형성하려면 먼저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 21세기 초에는 우리가 접하고 받아들이는 정보의 정확성과 구체성에 따라 사고의 수준이 달라졌다. 이제는 진실된 커뮤니케이션 도구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에게 정보가 흘러 들어온다. 이처럼 거짓이 섞인 정보에 대응하려면 지역적인 동시에 친밀하고 유용한 언론이 필요하다.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담대하게 지역 뉴스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발제자



포라멧 탕사타폰

Bangkok Post
뉴스 리포터
태국

학력

- ◎ 태국 쭈라롱껀 대학교 언어문화학 학사
- ◎ 영국 더럼 대학교 국제학 석사

주요경력

- ◎ Bangkok Post News 리포터 (2021 – 현재)
- ◎ 성소수자 권리 콘텐츠 프리랜서 작가 (2019 – 2020)
- ◎ BioAsia Ltd.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2017 – 2018)
- ◎ 영어/중국어 과외

수상경력

- ◎ 2022년 “Journalism for Equitable Asia” 부문 아시아 톱10 최종 후보

컨퍼런스 I

포라멧 탕사타운

[지역 발전을 위한 언론의 도전 - 태국 언론과 지역 보도]

소개:

의심할 여지없이 디지털 분열은 소비자와 언론인의 뉴스 소비 및 생산 방법을 가속화했다. 놀랍게도 디지털 민주화로 인해 소비자는 직접 뉴스 기자로 활동하여 자신이 목격한 것을 보도하고 은폐 또는 축소 보도된 사실을 폭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에 의한 과도한 정보 집중화, 미디어 소유권, 소비자, 규제 등 요인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기대되었던 지역 뉴스는 다시 물거품이 되거나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지역 뉴스를 보도할 때 태국 언론이 겪는 어려움을 소개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 요인

정부

태국 정부는 국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정책 입안자이기에 오랫동안 핵심 뉴스 및 정보 제공자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다. 올해 3월 20일에 의회 해산이 발표되고 태국 총선일을 몇 개월 앞둔 시점부터 이러한 행태는 또 다시 이어졌다. 의회 외부에서는 여러 정당 후보자가 다음 임기에서 당선되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에서는 겐 빠라웃(Gen Prayut)의 총리직 연임 여부, 전 국회의원이자 마사지 업계 거물인 추윗 카몰위싯(Chuwit Kamolwisit)과 같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 대마초 합법화 계획으로 비난받고 있는 보건부 장관인 아누틴 차르비가쿨(Anutin Charvirakul)에 대한 소식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 정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득표할 방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화두에 오른 3인, 즉 겐 빠라웃, 겐 빠라윗(Gen Prawit), 겐 아누풍 빠오친다(Gen Anuphong Phaochinda)의 소식을 다루는 뉴스가 이들의 불화를 언급하면서 그 상황을 과장하는 데 심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이 빠라웃 정권 8년 만에 태국 역사의 향방을 결정지를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기에 선거 관련 드라마 등 선거와 관계된 콘텐츠가 많은 이들로부터 기대와 호응을

포라멧 탕사타운

연고 있다. 즉 미디어는 많은 조회수와 후원을 얻기 위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보도하는 등 방식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예상할 수 있듯 대중이 진정 알아야 할 뉴스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태국에서 새로운 HIV 감염 사례가 발발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52%나 감염률이 증가했지만 그에 대한 기사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더 모티프(The Motif)”라는 명칭의 태국 남부 지역의 언론사는 “국가 안보에 해로운” 뉴스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국내안보작전사령부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미디어 조직 문화

앞의 주제에 이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언론인은 공익적 주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각 뉴스 조직의 인력이 부족한 탓에 뉴스 기사는 공익을 추구하는 지방 소식이나 지역 소식은 다루기 어렵고, 클릭할 때마다 더 많은 조회수를 얻는 데 신경을 쓰게 된다.

태국의 언론사는 다른 언론사가 다루는 뉴스나 주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마다 상호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각 언론사에는 모든 신문이 비치된 대형 테이블이 있으며 여기에서 뉴스 편집자와 언론인은 자신이 다루는 정보와 다른 곳의 기사를 비교할 수 있다. 뉴스 편집자가 다른 언론사의 기사에 집착하게 되거나 “남들만큼만 하자”라는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뉴스 편집자는 지역 소식 보도에 관심이 많은 언론인/기자에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취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인데, 편집자가 원하는 기사가 지역 소식만큼 중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

농부아람푸(Nongbuamphu)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으로 25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과 같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주제에 관한 지역 뉴스는 주요 기사로 다루지곤 한다. 그렇지만 사건 주제에 대해 보도하고 사회가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기회가 기자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편집자는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 대신 드라마적인 요소를 요구한다. 일부 언론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이 잃은 피해자의 눈물을 보여주면서 뉴스의 ‘좋아요’ 클릭 수나

컨퍼런스 I

포라멧 탕사타운

조회수 늘리는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보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피해 지역을 '인간 동물원'마냥 다루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는다.

언론 검열과 표현의 자유 억압

태국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억압받는 국가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이전보다 더 제한되었다. 태국에는 언론과 대중을 검열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연령 불문하고 모욕에 관한 형법 제112조(불경죄에 의한 처벌), 선동에 관한 형법 제116조(국가 안보 침해 범죄에 의한 7년 이하 징역)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언론인을 포함한 운동가에게는 '대중의 의사 표현에 대한 전략적 소송(SLAPP)'이 제기될 수 있고, 명예훼손법, 심지어 유관당국의 물리적 제재나 비난 성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형법 제112조, 제116조 등의 규정은 상당히 모호한 성질을 가진다. 제112조는 왕실 일원이 아니더라도 국왕을 향한 표현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집행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조항에 따르면 어떤 모욕적인 표현이든 왕실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116조는 제112조와 같은 논리대로 적용되며, 어떠한 행동이나 정보가 "대중에게 불안과 불만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면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최근 태국은 정보를 중앙집중화하고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가짜뉴스방지센터(Anti Fake News Center)"를 설립했는데, 이 때문에 언론인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부 지역의 언론사가 국내안보작전사령부의 질타를 받고 언론 관계자가 분리주의자나 남부 반란 범죄자라는 비난을 받은 실례가 있다. 최근인 2023년 3월 13일, 따른토(Tharnto) 경찰서에서는 남부 반란 사건을 생방송으로 방송한 와타니 뉴스(Watani News)의 편집자인 마나와리 나고(Manawari Na-go)와 뉴스 기자인 무하마드 하피시 살래(Muhammad Hafisi Sa-lae)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국내안보작전사령부 4사단은 홍보용 페이스북 계정에서 자신의 조치가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다고 언급하면서 사령부 이외의 출처에서 나오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포라멧 탕사타운

지역 뉴스의 신뢰성

지역 언론사는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어느 정도 다질 수 있지만, 다른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나누지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만 보도하다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있다. 이러다 보면 대중이 지역 뉴스가 편향적이라고 판단할 위험이 있다.

또한 지역 뉴스는 제작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주요 언론사와 달리 기술 비용과 출장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 제안

지역 뉴스의 번영과 뉴스에서 소외되는 자들의 보호를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전국, 지역, 지방의 여러 언론인 또는 언론사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언론사가 주요/주류 기관으로부터 정치적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 및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며, 언론인을 기소로부터 구제하는 기금이나 언론인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의 설립이 필요하다.
3. 지역 언론사가 전문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사의 파견식 언론인 교육을 수립해야 한다.



2023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3

24(Mon) - 29(Sat) April 2023

콘퍼런스 II

디지털 전환시대의 리더십과 언론의 미래

- 약력
- 발표자료



WJC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3

2023 세계기자대회

2023년 4월 25일(월)

컨퍼런스 II

주 제	디지털 전환시대의 리더십과 언론의 미래	
좌 장	정민호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 위원장, 한국	167
발 제 자	저우 닝 Xinhua News Agency, 뉴미디어센터 부편집장, 중국	168
	타이스 세뉴 France 24, 기자, 프랑스	174
	이가혁 JTBC, 기자, 한국	180
	류현정 조선일보, 디지털기획팀장, 한국	185
	아누파 쿠리안 머쉬드 Gulf News, 디지털 콘텐츠 기획 선임 편집자, 아랍에미리트	191



WJC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3

2023 세계기자대회

좌장



정민호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 위원장
한국

학력

- ◎ 미주리주립대학교 졸업 (2011)

주요경력

- ◎ 국무총리실, 통일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청, 법원, 체육부 등 출입
- ◎ 전 코리아타임스 디지털 콘텐츠 팀장

수상경력

- ◎ 코리아타임스 Best Journalists Award (2016, 2018)
- ◎ 한국과학기자협회 이달의 과학기자상 (2016년 12월)

주요저서

- ◎ Medical Pioneers of Korea (2019) 공동 저자

컨퍼런스 II

발제자



저우 닝

Xinhua News Agency
뉴미디어센터 부편집장
중국

학력

- ◎ 미국 퍼듀 대학교 사회학 석사
- ◎ 중국 인민대학교 언론학 석사

주요경력

- ◎ Xinhua News Agency 몽골 및 베이징 지사에서 근무

수상경력

- ◎ China News Award 수상
- ◎ Beijing News Award 수상

저서

- ◎ 《중국전통 의학 문화에 대해 말하다(2017)》
- ◎ 《중국 장기이식에 관한 5년간의 이야기(2020)》

[스마트폰에서의 신화 뉴스 에이전시]

우선, 전 세계 언론인을 위한 이 성대한 행사를 주최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한국기자협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 “디지털 전환 시대의 리더십과 지역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국 베이징에는 종루와 고루의 아침 종소리와 저녁 북소리가 들리고 자금성의 붉은 성벽과 날리는 눈을 볼 수 있는 고대의 신비로운 도시의 중심축 (City Axis)이 있다. 과거에는 자금성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보려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만 그 매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던 신화통신의 스마트 디지털 뉴스 상품인 "Digital City Axis"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베이징시의 중심축 (Beijing City Axis)의 웅장함과 우아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지식 그래프, 새로운 창조 산업과 같은 신기술을 사용하여 베이징시의 중심축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고 문화유산의 디지털 보호 의지와 계승에 대한 중국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 혁신, 발전은 현재 중국 주요 언론 매체들의 발전 방향이다. 신화통신사 푸하 사장은 신화통신사가 정보 기술과 모바일 인터넷의 이점을 잘 활용하고, 뉴스 보도 전 과정에 걸쳐 인식을 통합하며, "콘텐츠 + 기술 + 영감 + 미학"의 완벽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도시 축"은 모바일, 기술, 디지털 및 지능형 콘텐츠 경험을 창출해 국제적인 초일류 뉴미디어 기관을 구축하고 "휴대폰에 있는 신화 통신"의 장점에 의존하고 독립 터미널 및 소셜 매트릭스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신화 통신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다.

'모바일 신화통신'의 중요한 통신사로서 신화통신의 중화권 클라이언트가 4억 4천만 회 다운로드하여 중국 주류 매체 중에서 1위를 차지했고, 신화통신의 영어권 클라이언트가 1,560만 회 다운로드하여 본사 및 지사 각 부서의 뉴스 수집 및 편집 기능을 전국 및 전 세계로 연결했다.

컨퍼런스 II

저우 닝

이를 기반으로 신화통신의 클라이언트는 자원을 통합하고, 통신사 비즈니스를 혁신하며, 자체 제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품질 콘텐츠를 선도하고 있다. 텍스트, 이미지, 차트, 동영상, H5, AR, VR, MR, MV, SVG 등 모든 미디어 디지털 제품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모바일 신화통신’의 ‘아미 그룹 (Army Group)’으로서 뉴미디어 전용 라인 (500명 이상의 팔로워), 위챗(약 4천만 팔로워), 웨이보(약 1억 9천만 팔로워), 더우인(약 6천만 팔로워), 콰이쇼우(약 3천 8백만 팔로워), 위챗 비디오(약 320만 팔로워), 빌리빌리의 소셜 미디어 매트릭스 등을 포함한 신화통신의 뉴미디어 플랫폼은 총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화통신의 공식 웨이보 계정은 가장 권위 있는 정보원이며, 중국 내 주류 미디어의 뉴스 관련 공개 계정 중에서는 위챗 공개 계정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우인 (Douyin)과 콰이쇼우 (Kuaishou)는 중국의 다양한 쇼트 비디오 플랫폼 중 트래픽이 높고 팔로워 수가 활발한 상위 미디어 계정으로 자리 잡았다. 해외 소셜 미디어 매트릭스는 총 2억 7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모바일 신화통신’의 ‘경기병 (Light Cavalry)’으로서 메타버스 산업 연합을 구축하고 미디어 통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효과적인 연합 메커니즘을 통해 제조 부문, 미디어, 학계 및 기술 기업의 합의와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협력 및 통합하며 관련 미디어, 정부 및 기업 프로젝트의 구상 및 인큐베이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혁신을 첫 번째 발전 동력으로 삼아 디지털 차이나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탐구를 하고 있다.

‘모바일 신화통신’의 ‘종합 선두’인 ‘온사이트 클라우드 (On-site Cloud)’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혁신적인 통신 서비스이다. 기자는 휴대폰만으로 홀로그램 생방송을 쉽게 시작하고 실시간 스트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현재 온사이트 클라우드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뉴스 생방송 플랫폼이자 콘텐츠 종합 제작 플랫폼으로 발전했으며, 약 5,000개의 기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일일 최대 생방송 건수가 천 건을 넘고, 대량의 보도 데이터가 본사로 유입되고 있다.

신화통신은 또한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 수 있다’는 소셜 공공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용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에 글을 올리는

저우 닝

것처럼 풀뿌리 소셜 거버넌스와 관련된 지역 이슈와 핫스팟을 휴대전화를 통해 쉽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기자에게 묻다' 플랫폼 역시 주요 사회적 기능으로 기자에 초점을 맞추고 이면의 뉴스를 발굴한다. 현재 1,000명 이상의 신화통신 기자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해 수만 건의 국내외 네티즌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화통신의 디지털 채널을 이용해 쓰촨성 청두 자이언트 판다 사육 연구 기지에서 국보급 판다를 생중계하는 것부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현장에서 발표한 혁신적인 데이터 뉴스 리포트 "중국의 10차원"과 미국 NBA만큼 인기 있는 중국 구이저우의 농촌 농구 리그 '빌리지 BA'를 생중계하는 것, 그리고 올해 양회에서 AIGC 기술로 개발한 랩송 '봄으로 향하다'까지....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통합 뉴스 제품은 신화통신의 올미디어 형식으로 보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중국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기자로서 항상 신화통신의 핵심 사업별로 뉴스 제품 생산의 기술 역량 강화에 주력해 왔으며,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뉴스 및 통신 응용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과 기계의 대화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지능형 편집 부서를 구축하여 뉴스 제작의 모든 측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작동하는 실제와 같은 디지털 뉴스 앵커인 AI 합성 앵커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또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처럼 짧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정치 만화 로봇을 개발했다. 이전에는 5~6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면 최소 5~6일이 걸렸지만, 저희 기술을 이용하면 기술이나 그림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5~6시간 정도면 완성할 수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최근 OpenAI가 개발한 ChatGPT-4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와 학자들은 ChatGPT가 일부 분야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유용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 대규모 범용 학습을 통해 인코딩, 이해, 저장, 처리, 추론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컨퍼런스 II

저우 닝

인지 수준까지 발전했다. ChatGPT가 API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시스템과 연결되면 모든 산업, 소프트웨어, 디지털 시스템과 심층적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둘째, 기업이 및 중소기업에게 응용 기능을 개방해 산업 생태계의 급속한 발전을 가속화했다. ChatGPT는 오픈소스, 협력, 클라우드소싱의 모델이며,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의 대부분이 오픈소스 데이터 세트이다. 오픈소스는 또한 소수 기업이 기술을 독점하기보다는 산업 전체의 공동 발전을 촉진한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ChatGPT에는 몇 가지 숨겨진 위험도 있다. 첫째,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콘텐츠의 신뢰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매끄럽고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효과적인 검증 메커니즘이 부족한 일부 텍스트를 생성할 수도 있으며 일부 콘텐츠는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적 문제에 대한 사용자 질문에 ChatGPT가 답변할 때 존재하지 않는 법적 조항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둘째, 인공지능의 빠른 반복은 네트워크 보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ChatGPT는 네트워크 공격의 임계치를 낮출 수 있다. 네트워크 공격 자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공격 코드를 검색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수십억 개의 제품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기본 인프라에 대한 '정전', '석유 차단', '방송 중단'과 같은 대규모 공격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언론사로서 다음 단계에서 대규모 모델 기술, 대규모 모델 연구와 저장, 컴퓨팅 파워, 운영 체제 및 전자 데이터 자원 구축에서 인공 지능의 개발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최신 성과를 뉴스 제작에 신중하게 적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최신 발전 상황을 일반 대중에게 보도해야 한다.

그렇다고 열등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뉴미디어와 신기술의 영향으로 미디어 환경과 여론 생태계,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크게 변화했지만, 디지털 전환 시대에 신기술 수단이 아무리 발전하고 다양해져도 '콘텐츠가 왕'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뉴스 기자는 뉴스 속보 상황에서 현장 깊숙이 들어가 직접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심층 취재를 위해서는 육체적, 시각적, 정신적, 글쓰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습해야 한다. 챗봇과 같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간접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 깊숙이

저우 닝

들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뿌리를 찾아 가장 정확하고 진정성 있으며 효과적인 직접 정보를 얻고 뉴스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인 진실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어떤 반복적인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

컨퍼런스 II

발제자



타이스 세뉴

France 24

기자

프랑스

학력

- ◎ 파리에서 저널리즘 석사학위 취득 (2021)
- ◎ 프랑스 팜테옹 아사스 대학교 정치학 석사 취득 (2019)
- ◎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문학과 학사

주요경력

- ◎ France 24 옴저버 (2020 -)
- ◎ ENTR (2022 -)
- ◎ Liberation < Checknews > (2020-2021)
- ◎ Heidi.news 및 Geneva Solution 근무 (2020)
- ◎ France television - 베이징 지사 (2019)

타이스 세뉴

[프랑스 24 옵저버스: 디지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언론 모델]

프랑스 24 옵저버스는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통해 5,000명 이상의 민간 네트워크와 함께 15년간 주어진 사명을 달성해 왔다. 프랑스 24의 뉴스룸은 끊임없이 변모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탄생했으며, 언론인이 직면할 미래의 과제에 대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언론의 미래”와 “디지털 시대”라는 소식을 듣자, 시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챗GTP(ChatGPT)”와 “AI”라는 키워드가 머릿속에 바로 떠올랐다. 이들은 언론인의 경쟁 상대라거나 협력 대상이라고 불리고 있다. 호기심에 이끌려, 현재 화두인 온라인 AI 도구 챗GPT를 처음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이번 주제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았다.

챗GTP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모바일 장치가 등장하면서 뉴스 조직은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서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관행을 조정해야 했다.”라는 꽤 수준 높은 답변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어쩐지 공허함이 느껴졌다. 답변에 와닿는 느낌도, 예시도, 실생활에 기반한 근거도 없었던 까닭이다. 챗GTP는 달변가였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옮겼다. 바로 여기서 오늘날 디지털 정보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챗GTP는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이 방대한 정보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 언론인이 소셜미디어에 존재하는 정보의 정글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점,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기삿거리와 기삿거리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가득하다는 점 등 유용한 사실도 여러 지적하기는 했다.

나는 운 좋게도 끊임없이 변모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뉴스룸이 어떤 자세를

컨퍼런스 II

타이스 세뉴

취해야 하는지를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2009년에 설립된 프랑스 24 옵저버스(FRANCE 24 Observers) 팀과 지난 3년간 협업한 바 있다. 당시 옵저버스는 “협력적 언론활동(collaborative journalism)”을 토대로 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했고, 이를 통해 많은 이가 온라인에서 보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정보, 사진, 비디오로 우리에게 연락했고 팀원은 언론인으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옵저버스” 팀원은 5,000명 이상에 달한다. 이들은 왓츠앱(WhatsApp),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이메일 등을 통해 수백 명의 사람으로부터 기삿거리를 접하고,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중국어로 제보자와 소통 가능하다.

나의 경우 최근에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방의 치안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옵저버스 팀원이 이투리(Ituri) 지방에서 일어난 끔찍한 학살 사건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왓츠앱을 통해 전달하면서 드러났다. 동일한 영상이 이미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상태였다. 그렇지만 옵저버스 네트워크와 소정의 교차 검증 및 인터뷰 기법을 이용한 덕분에 이투리 학살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단순한 온라인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큰 영향력을 가진 뉴스 기사로 탄생할 수 있었다. 소셜미디어에는 공유하고픈 사연이 있지만 널리 퍼뜨릴 만한 기술, 언론화 능력, 법적 정당성을 확보 또는 보유하지 못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언론인은 소셜미디어상의 정보를 검증, 교차 확인, 스토리텔링, 분석 등 작업을 거친 후 뉴스 콘텐츠로 전환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뉴스 이용자에게 언론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언론 유형이 도입된 덕에 언론인은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활동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보도할 수 있게 되었다. 말리, 부르키나 파소 혹은 이란 등 지역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란에서 마사 아미니(Mahsa Amini)가 사망한 이후 동료 기자인 에르샤드 알리자니(Ershad Alijani)는 계속해서 이란의 내부 사정을 알린 바 있다. 이란의 한 제보자가 사진을 촬영한 뒤 뉴스룸으로 제보하면서 에르샤드는 프랑스-이탈리아 회사의 산탄총

타이스 세뉴

탄피 제보 방법을 조사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이란, 프랑스, 유럽 내부의 소식통과 디지털 수단을 이용해 이란 국내에서는 다루기 어려웠을 사실을 보도하는 데 성공했다.

예비 옵저버스 팀원에게 온라인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시아 소식을 다루는 나의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데, 아시아에는 아프리카와 달리 프랑스 24 활동가와 옵저버스 팀원의 수가 적은 까닭이다. 나는 온라인에서 연락을 취하는 등 방법을 통해 트위터상의 여성혐오 행태에 맞서 싸우는 페미니스트 운동가부터 인종차별이나 종교차별에 대응하는 외국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보자를 구할 수 있었다.

오픈소스 인텔리전스(OSINT)를 이용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도전

언론인이 디지털 시대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 심층 보도를 들 수 있다.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역시 옵저버스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다수의 중국 어선이 갈라파고스 제도 연안에서 조업하던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던 당시, 동료 기자인 리젤롯 마스(Liselotte Mas)가 이 사실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어떻게 취재했을까? 먼저 그녀는 해변에서 중국제 플라스틱 공병과 쓰레기 조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보한 섬 주민으로부터 여러 영상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정보를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와 같은 선박 추적 도구와 함께 사용하여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옵저버스는 제보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위성 영상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여러 마을이 화재로 소실됐다는 제보를 교차 참조하기 위해 준실시간으로 화재 실황 정보를 제공하는 NASA 지도인 “FIRMS”를 사용한 적이 있다.

게시 영상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옵저버스는 국제사실확인네트워크(IFCN)에서 인정한 사실확인 전문성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확인 절차에 뉴스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중이다. 사실확인 은 모든 언론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렇지만 사실확인을 거친 후 진실을 공유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사람들을 교육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지난 수년에 걸쳐 딥페이크, 최근에는 AI 생성 이미지 등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컨퍼런스 II

타이스 세뉴

협력적 언론활동과 사실확인 모두는 언론인이 오늘날의 미디어 생태계에서 접근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이 둘은 언론매체의 위세가 한물갔다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에게서 언론의 신뢰도를 유지하거나 회복시키는 역할도 한다.

드론 조종사와 같은 현대 언론인의 삶

옵저버스 팀에서 쌓은 경험은 디지털 세계에서 일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현대 언론의 특징으로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고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결국 언론인은 전 세계에서 제보되는 잔혹한 영상과 증거 자료를 끊임없이 접하게 된다. 가령, 파리 사무소에 얹은 채로 하루는 콕스 바자르(Cox's Bazar)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로 실의에 빠진 한 난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마(Goma) 지역 난민의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 일어나곤 한다. 물론 이러한 비극을 현장에서 실제로 접하는 것이 더 자극적이겠지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매일 들어야 하는 과정에서도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 이 문제는 뉴스룸이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 언론인의 삶을 보다 보면 전쟁터에서 죽음과 트라우마를 마주하다가 저녁이 되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는 미국의 드론 조종사가 떠오른다. 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임무시간과 사생활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전 세계 제보자와 소통하는 언론인들은 군인처럼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지는 않지만, 우선으로 처절한 상황을 끊임없이 제보받고 있다.

동료 언론인 중 일부는 현장에 파견되어 직접 보도하는 것만이 “진정한 언론”이라고 주장한다. 탁상 언론을 경멸하는 “journalism assis”라는 프랑스어 표현까지 존재한다. 하지만 나는 탁상 언론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세계를 통해 새로운 언론 형태를 창출하고 언론인이

타이스 세뉴

전 세계 모든 곳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식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주길 희망한다.

콘퍼런스 II

발제자



이가혁

JTBC
기자
한국

학력

-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크롱카이트 저널리즘 스쿨 연구원 (풀브라이트 험프리펠로우십)
- ◎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 학사

주요경력

- ◎ JTBC 아침뉴스 앵커 (현재)
- ◎ JTBC 팩트체크팀장
- ◎ JTBC 법조팀 기자
- ◎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수상경력

- ◎ 2022년 8월 제166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분
- ◎ 2016년 11월 제315회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부문

저서

- ◎ 〈그날 그곳 사람들〉 (한국판 2017, 대만판 2019)

[디지털 시대 뉴스룸의 리더십 - 더욱 많은 것이 요구되는 자리]

우선 이번 토론 제목 중 ‘디지털 전환’이라는 표현에 따지를 걸어본다. 미디어 관련 과거 기사를 검색해보니 대한민국 언론계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화두가 등장한 게 10년은 족히 넘었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게 현재 상황에 걸맞지 않은 표현 아닐까? 최근 JTBC에 입사한 신입 기자의 수습 교육의 첫 순서는 디지털 뉴스룸 실무 교육이었다. 현장 취재 실무, 오디오 녹음, 현장 중계 실습 같은 기존 방송 업무 교육보다 앞서 디지털 콘텐츠 생산과 유통 관련 교육을 최우선으로 받고 기자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디지털은 과거의 어떠한 형태에서 ‘전환’되는 목표지점이 아니라, 언론활동의 시작점이자 끝, 전부다. 그러나 아직도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토론 이슈인 것도 현실이다. 그만큼 오래 전부터 고민해왔지만 아직도 실현이 어렵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은, 참 어려운 과제다.

■ ‘모바일’과 ‘현장’ - JTBC의 디지털 사례를 중심으로

JTBC가 가장 우수한 사례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대한민국 언론사 통틀어 다양한 시도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언론사 중 하나라고 자평한다. 최근 JTBC 보도국은 ‘모바일’에 집중하고 있다. 크게 숏폼(Short-form video)과 미드폼(Mid-form video)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한다. 이를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유통해 뉴스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우선 ‘뉴씩’(짧게 쓱 보는 뉴스라는 뜻)이라고 이름 붙인 숏폼은 1분 남짓으로 구성된다. 기자가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하게 세로형 뉴스 콘텐츠를 촬영한다. 이 짧은 세로형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는 ‘현장’이다. 국회 회의장 내, 정부 청사 내, 우크라이나 전쟁터, 대형 산불 현장 같이 유튜브(이제는 언론인의 라이벌로 여겨지도 하는 콘텐츠 제공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핵심 현장에서 기자가 생생하게 소식을 전해야 한다. 기자가 마치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설명하듯이 어려운 사안을 최대한 알기

컨퍼런스 II

이가혁

쉽게 전달하는 것도 필수다. 이렇게 현장 기자가 촬영한 영상은 보도국에서 근무하는 PD와 편집자가 신속하게 후반 작업을 해 실시간으로 JTBC 보도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 공급한다. 뉴스이 지속가능하려면 촬영과 제작 모두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한다.

미드폼 ‘뉴딤’은 1분 정도 길이의 숏폼과 2분 정도로 제한된 TV 리포트로 소화하기 어려운 깊은 내용을 담기 위해 탄생했다. 설명형 뉴스 콘텐츠다. 어느 사안에 대해 100개를 취재했더라도 리포트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10개도 안 되는게 현실이다. 취재 기자는 이런 아쉬움을 미드폼을 통해 달랠 수 있다. 동시에, 뉴스 소비자는 기자의 깊이 있는 취재 내용이 녹아있는 질 좋은 콘텐츠를 손쉽게 접해볼 수 있다. JTBC는 ‘뉴딤’을 위해 보도국 내 간단한 녹화 장비와 조명이 갖춰진 1인용 스튜디오를 설치했다. 기자가 스스로 언제든지 비어있는 스튜디오에 들어가 스스로 카메라를 켜고 촬영하면 된다. 이 역시 편집과 자막 같은 후반 작업이 따라야하지만 전담 인원이 최소한의 작업을 한 후 신속하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유통한다.

■ 디지털 시대 뉴스룸의 리더십 - 더욱 많은 것이 요구되는 자리

JTBC 보도국을 비롯해 많은 언론사가 모바일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언론사마다 끊임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단순히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만 주문하기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기자에게 주어진 업무가 이미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뉴스룸 조직은 어떻게 굴러가야하는 것일까?

결승점을 바꿔야한다. 다시 말해, 저녁 프라임타임 메인뉴스(신문사의 경우 다음날 새벽 발행할 종이신문)만을 위해 한 방향으로 뛰던 조직 업무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바일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무는 일부 ‘디지털 전담 기자’가 할 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기자가 ‘디지털 기자’로 변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뉴스룸의 최고 결정권자가 ‘모바일 퍼스트’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중간관리자와 현장 기자 모두에게 ‘메인뉴스를

이가혁

목표로 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한다. JTBC를 비롯해 모바일 뉴스 시장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뉴스 조직의 경우 'TV 뉴스가 가장 중요하고, 모바일 콘텐츠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 디지털 영역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지시가 내려오고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간 성공적인 뉴스룸 리더십의 전형을 꼽자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리더십,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현장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전쟁터의 장수 같은 면모가 뉴스룸 리더십의 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뉴스룸 리더는 이 전통적인 표상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더 많은 걸 기대받는 '참 힘든 포지션'이 됐다. 세대를 뛰어넘어 최신 트렌드에 관심을 기울여야하고, 그간 뉴스 수용자라고 인식했던 집단이 아닌 '전혀 다른 집단'을 상대로도 판단하고 결정해야하는 자리가 됐다.

첫째, 디지털 사용자(또는 새로운 의미의 뉴스 수용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언론사마다 여러 디지털 지표를 통해 사용자를 분석하는 조직이 있다. 그 분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며 모바일에서 우리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이를 콘텐츠 생산·공급자인 뉴스룸 직원에게 전달해야하는 건 결국 뉴스룸 리더의 몫이다. '결정권자의 취향'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작동하는 뉴스룸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둘째,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 더욱 발 벗고 나서야한다. 전통적인 뉴스룸은 비교적 균질적인 집단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뉴스룸은 다양한 직군의 조직원이 아슬아슬하게 혼합된 조직이다. 더 이상 기자가 주 구성원이 아닌 조직이다.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쉽게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디지털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세대차이'도 극심해지고 있다. 최근 입사하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직원들은 레거시 미디어 사용자가 아니다. 신문 구독은커녕 저널

컨퍼런스 II

이가혁

TV메인뉴스를 챙겨보는 습관조차 익숙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부서에서 이들과 함께 일하는 나머지 절반의 조직원은 여전히 '우리의 최고 상품은 저녁 메인뉴스'라고 여기던 시절 언론인이 됐고, 여전히 그 시절의 업무 프로세스가 익숙하다. 이렇게 양분된 조직원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조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도 결국 리더에게 주어진 숙제다.

발제자



류현정

조선일보
디지털기획팀장
한국

학력

- ◎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졸업
- ◎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졸업, 박사과정

주요경력

- ◎ 전자신문 기자
- ◎ 조선비즈 정보과학부 부장/실리콘밸리 특파원
- ◎ IT조선 취재본부장/마이크로소프트웨어 편집인
- ◎ 조선일보 디지털 기획팀장
- ◎ 한국IT기자클럽 총무
- ◎ 리눅스재단 방문 기자

수상경력

- ◎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우수 논문상
- ◎ 한국기술사협회 공로 감사상

저서

- ◎ 특별 기획 - 4차 산업 혁명 : 로그인 투 매트릭스
- ◎ 특별 기획 - 녹색 성장 리포트
- ◎ 슈퍼퍼프드 (2020 · 감수)
- ◎ 시나리오 한반도 2019~2029 (2019 · 공저)

컨퍼런스 II

발제자

- ◎ 위클리비즈 테크트렌드 2018 (2018 • 공저)
- ◎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2016 • 공저)
- ◎ 기계와의 경쟁 (2013 • 공역)
- ◎ 에릭 슈미트 (2011 • 공저)
- ◎ 구글 vs 네이버, 검색대전쟁 (2008 • 공저)

[디지털 전환시대의 리더십과 언론의 미래]

서론

세계기자대회 2023이 열리는 이곳, 서울 광화문은 7년 전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전을 벌였던 역사적인 장소다. 당시 나는 시합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였다. 오랫동안 정보기술(IT) 분야를 취재한 기자에게도 이세돌 프로의 첫 경기 패배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알파고의 승리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마치 인류 전체가 기계에 패배한 것을 목격한 듯 고개를 떨구었고 태어난 지 10개월 안 된 딸을 떠올렸다. ‘딸은 평생을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겠구나...’.

‘챗 GPT’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안다.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올해 7살이 된 나의 딸과 같은 다음 세대의 이슈가 아니라 바로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라는 것을 말이다. 디지털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클로드 섀넌(Claude Shannon)이 메시지를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한 지 불과 80여년 만에 인류는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해주는 제1의 기계 시대를 지나 인간의 정신 노동을 대신해주는 제2의 기계 시대에 인류가 진입하고 있다.

본론

오늘날 디지털 전환 시대의 리더십과 저널리즘의 미래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리더십과 저널리즘의 미래’다. 바둑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잘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이 고군분투해 온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출중한 실력을 보여주는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고 그 진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정보기술 분야를 취재해온 기자로서, 또 회사의 디지털 전략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인류 역사의 변곡점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며 적응하는 것은 무척이나 떨리는 일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다.

이 대전환기의 리더십은 첫째, 미디어 업계의 집요한 혁신과 둘째, 그 어느 때보다

컨퍼런스 II

류현정

엄중해진 저널리스트로서의 본질적인 책무,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여기에 저널리즘의 미래도 있다.

이제 미디어 업계의 혁신은 ‘빠른 실행’, ‘기자, 개발자, 디자이너 협업’,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이라는 디지털 기업의 성공 방정식을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미디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감한 업무 개선을 통해 단순한 글쓰기를 비롯한 각종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저널리스트들이 팩트 기반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프로세스를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chronicle’ ‘telegraph’ ‘post’ 등 미디어 사명 뒤에 붙은 단어들에 잘 보여주듯 기술은 언제나 스토리 형식과 유통의 변화를 만드는 동인이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종교 혁명과 근대 국가 출현으로 이어진 인쇄 혁명 그 이상이다. 스토리 제작과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내가 존경하는 한 저널리스트는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모든 웹사이트는 다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시대 저널리스트의 본질적인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발렌시아가 패딩 입은 교황’ ‘체포된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루이비통 패션쇼에 선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서 훌륭한 저널리스트들이 만드는 팩트 기반의 저널리즘은 인류를 보호할 최후의 보루이자 높은 가치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팩트 기반의 뉴스가 없다면, 인공지능이 내뱉을 말들은 가짜에 가짜를 곁한 쓰레기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저널리스트들은 인류 실존과 기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폭넓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인공지능 때문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겨날 것이며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만든 교과과정은 쓸모 없게 되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이 커져 갈 것이다. 복지 정책의 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이버 대전 부상 때문에 국방의 범위가 크게 넓어질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놀라운 과학적 발견을 이어가는 데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저널리스트가 취재해야 할 영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인공지능 담당 에디터를 신설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류현정

저널리스트의 권력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중요하다. 정치 권력이든, 사회 권력이든, 플랫폼 권력이든 권력이 입력 데이터를 조작하면 인공지능도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독재자와 테러리스트들이 인공지능을 악용할 수도 있다. 샘 올트만 오픈AI CEO는 “핵 전쟁의 새벽이 왔다”라는 표현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다.

역사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인류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전방위적인 대화다. 윤리학자, 컴퓨터 과학자, 법학자, 심리학자, 역사학자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 간 대화를 이끌고 대중에게 소개하며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데 저널리스트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전 세계 미디어가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 지구적, 전 인류적 문제를 다루는 저널리스트들이 세계의 지혜를 모으는 데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언어의 장벽이 사라진 세상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빅 테크 기업들이 저널리스트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데에도 미디어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미디어는 또 가짜 뉴스 홍수 시대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 저널리즘 기금을 확보하는 일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를 위한 규범을 만드는 한 과정이다.

결론

범용 인공지능은 인류의 모든 업무 형태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고 인류가 이제껏 달성한 적이 없었던 효율과 통찰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기후변화 등 인류가 해결해야 할 복잡다단한 문제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다.

동시에 최근 2000명이 넘는 석학과 컴퓨터 대가들이 GPT-4보다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훈련을 최소 6개월 동안 중단하자고 한 긴급 제안이 보여주듯 범용 인공지능은 인류가 오랜 세월을 걸쳐 정립해왔던 질서를 파괴하며 모두를 디스토피아의 세계로 내몰 수도 있다.

컨퍼런스 II

류현정

인류의 운명은 결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주저 없이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Were it left to me to decide whether we should have a government without newspapers, or newspapers without a government, I should not hesitate to prefer the latter.)”고 했다. 현대 민주주의 설계자들에게 ‘언론 없는 범용 인공지능’과 ‘범용 인공지능 없는 언론’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해도 그들은 주저 없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 언론 없는 범용 인공지능이야 말로 인류가 기계에 진짜 패하는 디스토피아의 길이기 때문이다.

발제자



아누파 쿠리안 머쉬드

Gulf News

디지털 콘텐츠 기획 선임 편집자

아랍에미리트

주요경력

- ◎ Gulf News 디지털 콘텐츠 팀, 유니크한 콘텐츠를 기획
- ◎ Gulf News e-commerce 개설 및 관리
- ◎ 윤리 정책 및 소셜 미디어 개발 및 구현
- ◎ Gulf News 태블릿 에디션 제작 및 출시
- ◎ 구독자 데스크, 커뮤니티 저널리즘 네트워크, 인턴십 설립
- ◎ Gulf News 최초의 고등교육 주간지 편집자

컨퍼런스 II

아누파 쿠리안 머쉬드

[AI 시대의 뉴스룸 리더십과 저널리즘]

이 발표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챗GPT에 뉴스룸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동안 내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낸 답변과 상당히 비슷한 종합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것이다.

디지털 진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도입하는 것, 새로운 플랫폼을 탐색하고, 그 플랫폼을 넘나드는 독자층의 움직임에 적응하는 것. 이는 이미 지난 10년간 술하게 겪어 온 과정으로, 그 속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순간 쉽게 지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뉴스룸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 뉴스룸 전략의 중심에 혁신이 있다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걸프뉴스는 이를 일찍이 깨달았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추구해 왔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경우 뉴스룸이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고, 업계 리더인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 그 자체로 무서운 생명력을 지닌 가십, 소문, 오피니언 등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왓츠앱과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 대중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기존 언론에 대한 암묵적인 신뢰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많은 사람은 전통적인 언론이 보도하는 콘텐츠에는 숨겨진 의도나 근본적인 편향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만큼 각종 음모론을 더 빠르게 믿기도 한다. 그들을 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언론사의 불투명한 보도 방식에 관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투명성이나 책임성 같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핵심 전략으로 삼은 뉴스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신뢰는 만들 수 있다. 진실이 하는 일이 그렇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래매틱 광고 수입은 보잘것없고, 디스플레이 광고 경쟁은 치열하다. 그만큼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완전한

아누파 쿠리안 머쉬드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광고 콘텐츠와 보도 콘텐츠를 구분하는 섬세한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와 사회 구조가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뉴스룸은 결국 이용당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일까? 뉴스룸 리더십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고, 뉴스룸 경영진이 투자와 구축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 그렇지 않다. 바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저널리즘 시대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 구조가 취약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뉴욕타임스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에서 배운 것을 미래에 투자한 경영진에 관한 전형적인 이야기다. 그들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구축하려면 오늘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온라인 기사 유료화, 즉 디지털 구독 제도다. 사실 이는 사람들이 OTT 플랫폼은 돈을 주고 구독하면서 뉴스는 돈 주고 읽지 않으려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운영하기 어려운 모델이다. 걸프뉴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의 가입율과 전환율, 이탈율이 글로벌 표준을 뛰어넘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룸의 리더십, 특히 CEO와 편집장이 하나의 비전으로 단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치의 흔들림이 없는 꾸준한 소통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양성: 우리는 뉴스룸이 지역사회의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지만, 동서양 구분 없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다양한 관점을 접목하지 못한 콘텐츠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보도되는 내용은 모두 특정한 편향을 반영할까? 뉴스룸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 허점을 채우려는 모두의 단합된 노력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 이 역시 뉴스룸 구성원들이 더 많은 것을 달성하도록 영감을 주는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인공지능(AI): 사실 챗GPT가 제시한 답변에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 전 세계 뉴스룸을 위협하는 핵심 주제로, 바로 챗GPT와 같은 새로운 AI 모델의 등장이다.

컨퍼런스 II

아누파 쿠리안 머쉬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최근 한 매체가 걸프뉴스 아카이브에 있는 기사를 조금씩 변형해 자체 기사로 보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매체는 '저작권 침해'를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만 기사 내용을 수정해 내보냈다.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유료 구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큰 문제였다. 해당 매체는 일부 기사를 챗GPT를 이용해 작성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AI 텍스트 분류기에 돌려보는 등 조사에 나섰다. 결국 이 매체가 사용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복붙' 방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기술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저 뻔뻔한 절도 행위로, 우리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표절 문제는 AI 생성 콘텐츠가 낳은 수많은 우려 사항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AI는 창의성과 대립하며, 팩트 체크가 아닌 데이터 취합 기술인 만큼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한 PR 기업에서 어떤 테크 기업가가 챗GPT를 이용해 개발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입수했는데, 작동 방식을 시연할 테니 예방 차원에서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나에게 제안해 오기도 했다.

이처럼 경종을 울리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그동안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앞서 나가려 했던 노력이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이는 브랜드의 생존, 나아가 저널리즘 수행 방식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지난 3월 미국 국제언론인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에서 챗GPT의 장단점을

아누파 쿠리안 머쉬드

분석한 글을 공개한 바 있다. 챗GPT가 특히 개념을 이해하거나 질문을 생성하는 차원에서 비영어권 출신 언론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다. 단, 챗GPT가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AI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기에 항상 사람이 확인과 평가를 하고 최종적인 주관적 결정도 사람이 내려야 한다. AI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저 도구로만 여겨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 콘텐츠 편향 등과 직결되는 문제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언론사의 리더십 및 저널리즘의 미래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로 챗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이를 유리한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한 언론 매체는 소셜 미디어, 정확히 말하자면 페이스북이다.

사실 우리는 수치상의 성장과, 뉴스를 얻기 위해 우리의 소셜 플랫폼을 찾는 독자층의 유기적인 구축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오랫동안 깊이 고민했다. 결국 후자를 선택한 우리는 경쟁자들에 비해 더디게 성장했고, 특히 초반의 격차는 더욱 컸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리즘이 생성하는 자극성과 증폭 등 인위적인 조작 행위를 거부했다. 이러한 것들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양질의 콘텐츠는 플랫폼과 관계없이 살아남을 수 있고, 독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소셜 미디어 누적 이용자 수가 500만 명 이상인 유일한 언론사로 성장했고, 그 과정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UAE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출처: 글로벌 미디어 인사이트, 2023)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동

컨퍼런스 II

아누파 쿠리안 머쉬드

지역에서 걸프뉴스가 지닌 리더십의 영향력을 명확히 가늠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콘텐츠 중심의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 도구에 적응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혁신 관리,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검사했으며, 편향을 제거하고 다수의 출처에서 이중으로 정보를 얻었다. 그 사이 경쟁자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상관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을 한 개의 팀이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성공한 이유는 최고 경영진부터 말단 직원까지 일관성 있는 사고방식이 하나의 줄기를 타고 흘러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뉴스룸과 더 나아가 저널리즘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적인 진실이 담겨있다. 언론사와 투자자, 언론인, 재정 및 마케팅 등 지원 부서 모두 하나의 박동에 맞춰 각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로 브랜드와 리더십을 지탱한다는 최종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한다.

많은 도전 과제와 예상치 못한 변수, 그리고 성공이 있는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모두가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진리라고 생각한다. 기사를 보도할 때는 투명성, 책임성, 진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광고나 마케팅 콘텐츠는 그 정반대의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 모든 팩트를 확인하고, 출처를 이중으로 확보하며, 육하원칙의 모든 요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아누파 쿠리안 머쉬드

라틴어에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Unus pro omnibus, omnes pro uno)’라는 말이 있다. 미래 뉴스룸 성공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